

# 우리나라 옛 조형의 의미

宋 旼 求  
송민구건축연구소

## I. 서론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고건축의 연구결과들을 보면 형식적 구성의 점에서 관찰하는 태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말하자면,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Fletcher의 건축사와 같은 비교 역사학적 방법을 택한 것이다. 그러나 그 바탕에 흐르고 있었던 시대정신은 무엇이었던가에 눈을 돌려, 다시 말하여 정신사적 측면에서 그것을 밝혀 볼 때에는 참으로 놀라울 정도로 많은 의미가 깃든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기호론적(記号論的, Semiotic)으로 말하면, 외연적 지시(外延的 指示, Denotation) 또는 1차적 기능에 관한 연구로 맴돌고 있었던 것을 내포적 의미(內包的 意味, Connotation) 또는 2차적 기능의 복합체를 파악하려고 할 때에는 전통에 관한 문제가 더욱 선명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유독 기호론을 내세우는 것은 다른 어떠한 방법보다도 언어학적 방법으로 분석할 때 정치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이 오늘날의 정설이기 때문이다.

어떻든간에 현대 우리 동양인 대중의 생활에까지 뿌리깊게 내려있는 고대사상을 분석하여 보면 수(數)의 신비성과 천문에 관한 개념이 지극히 복잡하게 얽혀서 무수히 가치를 뽐고 있다.

말하자면, 비언어적(非言語的) 성분이 언어적 성분으로 변화하여 그것이 그물과 같이 짜여져 고대 사상을 형성한 것이며, 그 결과 옛 조형예술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필자는 믿고 있다.

후술하겠으나 하도(河圖)와 낙서(洛書)와 같은 비언어적 성분이 광대한 중국 고대사상을 형성케 하였으며, 거석문화(巨石文化) 때부터 이미 있었던 만자(卍字)는 고대 인도의 신화로까지 변화하였다.

그러므로 그러한 고대사상과 조형예술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옛 조형에 부여하였을 의미를 읽어 전체의 통사적(統辭的, Syntatic) 구성을 이해 하자는 것이다.

그러한 고대사상의 근간을 이루는 대표적인 예는 앞에서 말한 하도와 낙서도 그러하거니와 주역(周易)의 계사상전(繫辭上傳)이 또한 그러하다.

한편 형태소(形態素, Morpheme)로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생각되는 고대 인도예술의 기법의 하나인 3 굴법(3 屈法)도 그러하다. 후술하겠으나 3 굴법은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 천문현상과 그것을 도상화(圖像化, Iconographic)한 것이 밀접하게 연합되어 의미작용을 하게 된다.

그것은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어 말하자면 언어학적 분석에 따르는 하나의 의미소(意味素, Sememe)를 이루고 있으며, 그 의미소의 뒤에는 좁게는 천인동일사상(天人同一思想), 예를 들면 임금은 하늘이라는 것과 넓게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영원한 수복강영(壽福康寧)을 기원하는 절실한 인간적인 염원이 깔려 있다고 생각 된다.

그러한 의미적 코드(意味的 코드, Semantic Code)와 양식을 아울러 분석하여 항상 문제를 야기시키는 전통의 의미를 더욱 명석하게 정립함으

로써 우리문화의 창조적 발전에 이바지 하자는 것이 본문의 목적인 것이다.

필자는 전통은 계승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전통적 양식을 그대로 옮기자고 하지는 않는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우선은 그 의미를 읽을 수 있어야만 한다.

근대 예술사의 방법론에서 혁혁한 업적을 남긴 Wölfflin (1864~1945)은 문화의 성쇠는 변증법적(辯證法的, Dialectical) 길을 밟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正, These), 반(反, Antithese), 정(整, Synthese)의 길을 평면적으로 보았던 까닭에 역사의 회귀성(回歸性)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였었다. 그러므로 Spengler (1880-1941) 나 Toynbee (1889~1975)는 그 변천의 길을 나선형으로 파악하였으며, 그것을 Umberto Eco는 건축에서 소멸(消滅)과 치환(置換)과 재생(再生)의 길을 밟는다고 표현하였다.

그러한 역사의 회귀성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현대 우리들은 실감하고 있다. 즉 2차대전후 영국의 저명한 평론가 Richards는 폐허에서 부흥되어 가는 유럽을 돌아보고 크게 두가지를 지적하였었다. 새로운 이론에 입각한 도시계획은 기존도시의 Infrastructure를 그대로 이용함으로써 실패하였다는 것과 Modernism이 화려하게 꽃필 것이라고 기대하였던 것이 의외에도 역행하여 복고주의적인 것으로 흐르고 있음을 개탄하였었다.

말하자면 Jencks가 지적하듯 1950년대부터 Post Modernism이 싹트고 있었던 것이다.

Post Modernism은 건축을 언어로

보려는 건축가들의 움직임과 강력한 언어철학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흐름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복고적인 장식성의 병존(併存)을 보게되고 역사의 회기성을 느끼게 된다. 왜 그러한 흐름이 일기 시작하였는가는 앞으로의 역사가들의 분석에 의하여 더욱 선명해질 것이나 Modernism은 조형예술이 지녀야 할 모든 의미를 제거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인간성을 소실함으로써 비참한 전쟁의 상처에서는 꽃필 수가 없었을 것이다. 또 폐허 속에서 새의 재생을 기대하지 않을망정 치환으로 수천년을 쌓아올린 전통을 되살려 보자는 것이 인간의 상정이 아닌가 싶다.

그러므로 Post Modernism에 속하는 건축가들은 합리주의의 타당성을 추구하면서 한편으로는 대중들이 이해할 수 있는 Vernacular(방언)한 것, 지역적, 전통적인 것, 심지어는 상업주의적인 것이라도 병존시켜 일종의 절충주의적인 것을 만들어 내었다.

지금 어느 민족 어느 나라든 인간의 존엄성에 눈 뜨고 인간성 회복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는 곳은 없다. 또 자신의 언어를 버릴 수 없듯이 수천년을 걸어온 자신의 민족의 정신 또한 버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Jencks는 C. I. A. M.을 붕괴시킨 Smithson 조차도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장(場), 동일성(同一性), 개성(個性), 귀소본능(歸巢本能)과 같은 본질적으로 필요한 인간적 가치를 그가 갖출 것이라고 믿고 있으나, 실제로 기계의 Metaphor에 의거한 새로운 언어로써 그러한 의미를 도대체 어떻게 전달시키려고 하는가?'

다만 지금의 Post Modernism이 우리들을 혼란에 빠뜨리게 하는 것은 그것을 그대로 우리들의 것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데에서 오는 것이다.

우리들은 그 나라 그 나라의 Vernacular를 알지도 못하거나와 알 필요도 모방도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만일에 Post Modernism의 논리가 옳은 것이라고 하면 왜 우리의 방언, 우리의 지역성을 합리주의와 병존시키려고 하지 않는가? 바로 그러한 논리가 우리들의 전통계승 문제에서 부

각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옛 조형의 의미를 분석하고 합리주의와 병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아야 할 것이다.

본론을 전개시키는데 있어서 방법론적으로는 우리들의 정립되지 않은 학문의 상태에서는 지금까지의 경직된 형식에 사로잡힌 분석으로는 본질을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지극히 유연성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고도로 발달하고 광범위한 현대의 학문은 서로가 여러가닥의 가지로 이어져 있으므로, 의미는 다르나 Umberto Eco류로 말하여 그 연관성을 어떻게 'Ockham의 면도칼의 원리' 즉, 「존재물은 필요이상으로 증대시켜서는 안된다. (Non Sunt Multiplicanda Entia Praeter Necesitatem)」라는 것과 같이 절단하여 한정할 수가 있겠는가 하기 때문이다.

다만, 본론은 특히 과학사의 힘을 많이 빌릴 것이며, 주로 건축을 많이 다룰 것이나 연관되는 조형에 관해서도 언급하게 될 수 밖에 없었다.

### 1. 하도(河圖)와 낙서(洛書)

#### (1) 역사적 배경

건국전설이 전해지고 또 가장 분명한 중국의 역사시대를 이룩한 은(殷)의 많은 유적이 남아 있는 황하(黃河)는 티베트의 고원지대에서 흐르는 몇가닥의 강이 난주(蘭州)에 모여 황하의 본류를 이루게 된다. 난주는 옛날

내몽고 까지 흘러 역사적으로 유명한 Ordos 지방을 네모나게 에워싸고 다시 남쪽으로 흐른다. 그것이 서안(西安 또는 長安, 漢代에는 京北)과 낙양(洛陽)의 중간 지점에서 구부러져 동으로 흘러 황해에 이르게 된다.

그 구부러지는 지점으로 Ordos의 남쪽 산악에서 시작하는 위수(渭水), 경수(涇水), 낙수(洛水)가 합류하게 된다. 그 유역들에서 중국의 고대문화가 꽃피게 된 것이다(그림-1).

지금으로부터 약 5000년 전 복희(伏羲 또는 包羲)라는 성인이 황하(黃河)에서 출현했다는 용마(龍馬, 8척이 넘는 말을 용마라고 함)의 등에 그려져 있었다는 그림 즉 하도(河圖 또는 河出圖)를 보고 진리를 깨달아 8괘(八卦)를 노렸다고 한다. 그 하도와 복희 8괘(伏羲八卦)는 동양사상의 근본을 이루게 된다.

복희는 처음으로 백성에게 고기잡이, 사냥, 목축 등을 가르쳤으며, 대를 이어 신농(神農)은 농사짓는 법을 가르쳤고 가지가지의 풀을 씹어 맛을 보고 의약의 처방을 생각해 냈다고 하며, 그 후에 황제(黃帝)는 문자, 수레, 배 등을 만들고 도량형, 약법, 역법, 음악, 잠업 등 많은 문물과 제도를 확립하였다고 한다.

그러하여 황제의 연대를 기원전 2700년까지 거슬러 추정하고 있으나, 말하자면 신석기시대(Neolithic)의 농경문화가 싹트던 때를 말하는 것인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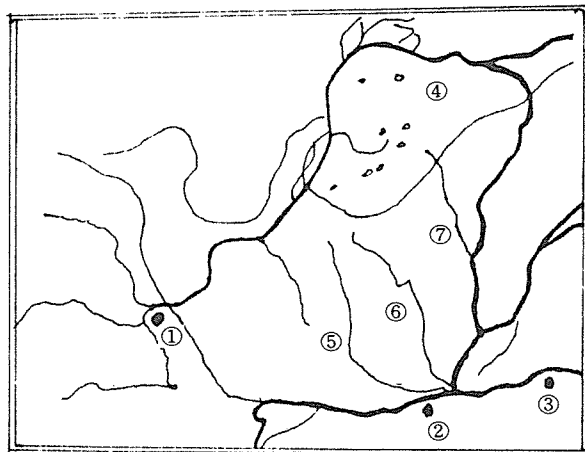


그림 1

에는 금성(金城)이라고도 하였으며, 하서회랑(河西回廊)의 출발점으로서 Silk Road로 이어지는 감주(甘州) 숙주(肅州) 둔황(敦煌)으로 가게 되는 길목이다. 황하본류는 이에서 북으로

문화사적으로는 많이 뒤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집트는 이에 앞서 Kheops, Kephren, Mycerinos 등의 시대를 거치고 있었으며, Gizeh의 피라미드 중 가

장 큰 것이 Kheops 왕을 위한 것인데, 한 변의 길이가 230m 나 되는 거대한 석조구조물을 어떻게 구축하였는가는 현대에서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의 하나로 되어 있다.

이집트 보다 앞서 Sumerian은 고도의 문화를 이룩하였다가 쇠퇴하여 1000년의 불명한 시대를 보낸 후 B.C 2500년경에 Lagash 왕조시대를 연 것도 황제의 시기와 별 차가 없다.

Sumero-Akkadian 예술시대는 더욱 앞서며, Akkad인들은 Sumer인들이 쓰기 시작한 계형문자(楔形文字)를 발전시켰다.

황제를 뒤이어 요(堯), 순(舜), 우(禹 夏의 임금)가 차례로 이상적인 천자로서 대를 이었다. 하의 우왕이 낙수(洛水)에서 치수하다가 신비스런 거북 한 마리의 등에 그려진 그림을 보고 읊긴 것이 낙서(洛書)라고 한다.

주. 1

사기홍노열전(史記匈奴列傳)에는 홍노의 선조 하후씨(夏后氏)가 하왕조의 일족이며, 홍노는 그의 자손 순유(淳維)라 말하고 있다.

그렇듯 중국고대사에서는 혈연 구별이 모호하므로 일본학자들은 한민족(漢民族)과는 언어풍습이 전혀 다른 홍노족을 하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하였는데 그러한 소론에는 선뜻 동의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러한 특수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과 기원전 1850년경으로부터 2200년경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전설과 같은 하왕조의 일에 독단적 판단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사기홍노열전에서도 지적하듯이 하시대 이전의 요, 순시대에도 북방에 기마민족들이 살고 있었으며, 초기철기시대를 연 Scythai족들의 문화전파범위로 보아서 기마민족들의 활동무대는 유럽으로부터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광대하였다는 점이다. 최근의 중국역사가들의 주장은 하서 회랑의 끝 둔황까지를 Scythai 문화권으로 보고 있다. 즉, 신장성 전역이 그러하다는 셈인데, 이 점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하의 걸왕(桀王)은 폭군으로 악정을 베풀므로 은(殷)의 탕왕(湯王)이 이를 쳐서 남소(南巢, 鳴條라고도 하며 지금의 山西省 安邑縣 북쪽)로 쫓고 하를 멸망시킨 후 나라를 상(商)이라 일컬었다가 은에 이어졌다.

B. C. 1400년으로 부터라고 추정되는 은이 중국역사상 가장 뚜렷한 흔적을 남겼다.

은의 주왕(紂王) 역시 폭군이어서

나라가 어지럽게 되자 그 틈을 타 주(周)의 무왕(武王)이 이를 멸망시켰다. 주왕의 숙부이고 신하이며 어진 기자(箕子)에게 무왕이 찾아가 천도(天道)를 물으니 기자가 홍범구주(洪範九疇)를 말해주었다고 한다. 홍범구주는 원래 하의 우왕으로부터 전해진 것을 기자가 미루어 넓힌 것이라고 하는데, 복희의 8계와 우왕의 5행(五行)에 관한 사상이 홍범구주에서 더욱 정교하게 이루어 졌다.

주. 2

홍범구주의 홍은 대(大), 범은 법(法)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대법을 뜻한다.

그 목이 아홉가지 있기 때문에 홍범구주라고 일컬어졌는데, 이 중의 법과 주의 두 글자를 따서 Category를 범주라고 번역한 것이다.

구주의 목의 첫째는 5행이다.

주의 문왕(文王)은 우왕의 낙서에 서 다시 8괘를 지었으므로 그것을 문왕 8괘라고 하며, 주공(周公)을 거쳐 내려온 것을 공자(孔子, B. C 552-479)가 5경(五經: 詩經, 書經, 春秋, 易經, 禮記의 다섯 경서)으로 집대성함으로써 그것이 역경(易經)에 남게 된다. 역(易)에는 연산역(連山易), 귀장역(歸藏易)도 있었다고 하나 전해져 내려와 남은 것은 역경 뿐이며 역경을 주역(周易)이라고도 한다. 이렇듯 주역은 하도와 낙서를 바탕으로 하여 수의 신비성에 의미를 부여하고 삼라만상의 생성원리와 함께 인간만사를 다루는 내용을 지니게 되므로 세사사람들은 그것을 역점으로 보고 비루하게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 내용은 심오하여 피상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되며, 특히 주역의 근본사상을 이루는 계사전(繫辭傳)은 조형예술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을 알게 될 것이다.

(2) 하도와 낙서의 의미

세계적으로 이름난 중국 과학사의 권위자 야부우쥬 기요시(薮内 清)의 글을 인용하면

‘... 중국에는 옛부터 하도, 낙서의 전설이 있었다. 이 하도나 낙서가 어떤 것이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11세기의 주진(朱震)이라는 학자가 이것을 처음으로 그림으로 나타냈다.

그에 의하면 하도는 1에서 9까지, 낙서는 1에서 10까지의 수를 도상화하여 배열한 것으로서, 특히 하도는 가로, 세로 및 대각선상의 수의 합이 모두 15가 되는 방진(方陣)이다. 이 하도, 낙서는 남송(南宋) 시대에 이름이 거꾸로 되어, 옛날 하도가 낙서로, 낙서가 하도로 되었다. .... 하도와 낙서의 그림은 주진의 책에 따르면, 북송(北宋) 초의 유명한 도교도(道教徒) 진단(陳搏)으로부터 비롯된다고 한다...’ (그림-2)

원래 오경(五經) 중의 하나인 서경(書經)의 경우만 하더라도 B. C 2500-2000년경 황하상류 및 Ordos까지 지배하고 있었던 진(秦)의 중국통일로 병화에 백편중의 많은 것을 잃었다고 하며, 잃은 것은 구전되기도 하고 위작되기도 하였다. 송대(宋代)에 연구가 활발하여지는데 하도와 낙서의 경우도 3000년동안 전해진 전설로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지 않다.

여하간 도교도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하면 그들의 신비사상과 수의 신비성은 용이하게 융합될 수가 있다.

하도와 낙서에는 고하도(古河圖)와 고낙서도 있으나 표면에만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의미는 다 같다.

주역의 근원이 되는 하도와 낙서의 의미는 지금까지 알려진 외에도 많은 Metaphor를 지닐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하도는 주희(朱熹, 1130~1200)가 주역계사상전(周易繫辭上傳)의 한 귀절을 인용하여 그것이 하도의 수라고 하였다. 계사상전의 귀절은 다음과 같다.

‘하늘은 1, 땅은 2, 하늘은 3, 땅은 4, 하늘은 5, 땅은 6, 하늘은 7, 땅은 8, 하늘은 9, 땅은 10이다. 천수도 5, 지수도 5다. 다섯자리가 서로 얻어서 각각 합하는 것이 있다. 천수는 25, 지수는 30이다.

무릇 천지의 수가 50이요 5다. 이것이 변화를 이루며 귀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 말하자면, 비언어적 성분인 하도가 언어적 성분을 지니게 되는 것인데, 이에 여러가지의 의미가 부여된다. 우선 홀수를 하늘, 짝수를 땅으로 음양설적 의미를 부여하면서 10진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한 사고는 중국 독자적인

것인가 의문을 느끼게 하는데 후술하겠다. 음양설에 관해서는 계사상전에서 말하기를

‘... 이런 까닭으로 역(易)에 태극이 있다. 이것이 양의(兩儀)를 낳고, 양의가 사상(四象)을 낳고, 사상이 8괘(8卦)를 낳는다. 8괘는 길흉(吉凶)을 정하고, 길흉은 큰 사업을 낳는다’ 라고 하였다.

주

양의는 양(陽)과 음(陰)을 말한다. 사상은 태양(太陽), 소음(少陰), 소양(少陽), 태음(太陰)을 말한다. 사상은 8괘를 낳는데 건(乾), 태(兌), 리(離), 진(震), 손(巽), 감(坎), 간(艮), 곤(坤)으로서 하나 하나에 여러가지 의미를 부여한 동시에 수와 결부된다.

이렇듯 2진적으로 의미를 파생시켜 음양설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고대 이집트에서의 수의 연산방법(演算方法)과 같다. 이집트에서는 10진법이면서 2진적 연산을 하였는데 예를 들면  $13 \times 15 = 195$ 의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이 하였다고 한다.

• 1	15
• 2	30
• 4	60
• 8	120
13	195

여기서 1, 2, 4, 8은 모든 자연수를 구성하는 요소들이고 그의 배수의 합계로서 답을 구하는 것인데, 중국 사상과 유사함을 엿볼 수 있다.

다음 ‘천수는 5, 지수는 5’라는 것은 하도에서 중앙의 5와 그 상하에 5가 또 있는데, 밑에 있는 5를 천수(天数) 위에 있는 5를 지수(地數)라고 말한 것 같다. 왜냐하면 하도에서 알 수 있듯이 5를 중심으로 1의 시작을 밑에서부터 하며, 동서남북의 표기도 1에서 북부터 시작하여 지금 우리들의 표기방법과 정반대로 하고 있다. 또 천자(天子)는 북에 자리잡고 남향하므로 천자를 중심으로 하면 천자의 좌측이 동이 된다. 기타 다른 것도 밑에서부터 시작하여 위로 진행되는 방법이 관습화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였던가는 알 길이 없으나 이상을 미루어 볼 때 천수는 중심에 있는 5의 밑에 있는 것이리라 생각된다. 또 중앙의 5와 위, 아래의 5를 어느 것을 더하든 10이라는 지

수를 얻게 된다.

다음 ‘다섯 자리가 서로 얻어서 각각 합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하도를 크게 나누어서 중앙과 4변의 네 자리로써 다섯자리가 되며 중앙의 5와 외진의 1, 2, 3, 4를 더하면 외진의 바깥의 수 6, 7, 8, 9가 되므로 ‘다섯 자리가 서로 얻어서 각각 합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생각된다.

천수는 25라고 한 것은 홀수만을 더하면 25가 되며, 짝수만을 더하면 지수인 30이 된다. 이 두 수의 차는 5가 된다. 또 두 수를 다 합한 천지(天地)의 수 역시 5를 11배한 55로서 후술하겠으나 50 즉 대연(大衍)의 수와 5의 차이가 난다.

말하자면 본질적으로 질서를 지니고 있는 수를 다른 어떤 질서하에 놓이게 하여도 새로운 질서를 낳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만일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본질적인 수의 질서를 부정하게 된다. 그러한데에서 수의 신비성이 깊어진 것 같다. 그리하여 ‘변화를 이루며 귀신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그 신비로움을 강조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위 글을 계속하면 다음과 같다.

‘대연(大衍)의 수는 50이지만, 그 쓰는 것은 49다. 이것을 둘로 나누어서 천지를 형상하고 하나를 계(掛)하여 삼재(三才)를 형상하고 이것으로 4로 세어서 4시를 형상하고 기수(奇數)로 시초(蓍草)를 손가락에 끼워 윤(閏)을 형상한다.

5년이면 다시 윤달이 든다. 그러므로 다시 시초를 손가락에 끼운 뒤에 걸어 놓는다.

건(乾)의 책(策)은 216, 곤(坤)의 책은 144, 모두 360이니 이것은 1년의 날 수에 해당한다. 두 편(篇)의 책이 11520이니 이것은 만물의 수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다.

앞의 대연의 수라고 한 것은 어떤 수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다. 학자에 따라서 해석이 다른데 10간(十干), 12지(十二支), 28수(二十八宿)의 합계라는 설, 태극(太極), 양위(兩儀), 일월(日月), 4시(四時), 5행(五行), 12월, 24기(二十四氣)의 합계라는 설 등 구구하다.

주자(朱子)는 천 5(天五)에다 지10

(地十)을 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점치는데 50개비가 천지의 신비를 감추고 있는데 그 중의 한 개비는 유(有)의 모체가 되는 무(無)를 상징하는 태극에 속하는 것이라고 해서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49개비라고 해석하고 있다.

이렇듯 대연의 수 50이라는 것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게 되는데, 총체적으로 우주에 관한 것이며 그 하나 하나의 의미가 또 다른 의미로 분기(分枝)한다. 그리하여 다른 것들의 의미의 분기와 거미줄 같이 엮어져 고대사상을 형성하였다는 것이다.

한 예가 하도의 의미에 5행설이 첨가하게 되어 다음에 설명할 천지창조의 사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오행설은 하의 우왕이 전한 것이라고 하며, 따라서 그 기원은 펙 오래된 것으로 생각되나, 하는 B. C. 2200년에서 B. C. 1800년 까지의 나라이므로 Babylonia의 Hammurabi 왕대에 해당한다.

Hammurabi 왕은 역사상 알려진 최초의 법전을 만든 왕이다.

그런데 천지창조의 전설은 멀리 Sumer로 부터 Babylonia, Assyria로 전해 내려온 것이라고 한다. 한편 그들의 원시종교인 천체숭배로서 해, 달, 수성, 목성, 화성, 토성, 금성의 관찰에서 천문에 관한 지식과 함께 점성술이 발달되었다. 그러므로, 여러 학자들이 지적하듯이 중국의 고대사상은 독자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방에서 흘러 들어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오행설은 만물을 조성하는 다섯 가지 원기로서 수(水) 목(木) 화(火) 토(土) 금(金)을 생각하고, 물이 나무를 생기게 한다고 하여 수생목(水生木), 나무가 불을 생기게 한다고 하여 목생화(木生火), 불이 흙을 생기게 한다고 하여 화생토(火生土), 흙이 쇠를 생기게 한다고 하여 토생금(土生金), 쇠가 물을 생기게 한다고 하여 금生水(金生水)라고 하였다.

그리하여 만물의 생성원리를 설명하면서 하나의 윤회사상(輪廻思想)을 형성하였다. 그러한 까닭에 생성의 원리에 따른 것을 오행상생(五行相生)이라고 하며, 이것을 역행하는 것을

오행상극(五行相克)이라고 하는데, 만사에 있어서 오행상극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오행설을 제창하여 성공을 거둔 사람은 추연(鄒衍)이라는 학자로서 B. C. 4세기말 전국시대 때 제(齊)의 선왕(宣王)대에 활약한 사람이다. 그것을 지지받게 된 것은, 특히 오행설에 따라 제왕의 이론을 주장하였으므로 시끄러운 세상의 여러 제후들 사이에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었던 것이다. 뒤에 한(漢)에 이르러 그것이 더욱 정교하게 만들어지고 대를 내려오면서 여러가지 설이 첨가되어 복잡한 체계를 이루게 된다.

그리하여, 앞에서 말한 바 '다섯 자리가 서로 얻어서 각각 합하는 것이 있다'라는 구절은 단순한 수의 합산으로만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실로 절묘한 해석들이 나오게 되었다.

서경홍범편(書經洪範篇)에는 一曰水, 二曰火, 三曰木, 四曰金, 五曰土, 水曰潤下, 火曰炎上, 木曰曲直, 金曰從革, 土爰稼穡, 潤下作鹹, 炎上作苦, 曲直作酸, 從革作辛, 稼穡作甘이라고 하여 하도와 오행이 합쳐져 다른 또 하나의 의미를 파생하고 있다.

수와 오행이 결부하는 방법은 지극히 흥미롭다. 즉, 하도에서 1은 수(水)와 짝지워지는데 물은 적시며 낮은 대로 흐르는 까닭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2와 화(火)는 불은 타오르므로 짝지워지게 된다. 나무는 굽은 것과 곧은 것이 있고, 쇠는 순하여 고쳐지며, 흙은 느즈러져 농사를 하게 된다. 그리하여 물에서 짝한 것, 불에서 쓴 것, 나무에서 신 것, 쇠에서 매운 것, 흙에서 단 것이 만들어 진다는 물질의 성질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중앙이 흙 또는 땅이며 5와 짝지워져 있고 천원지방(天圓地方)을 믿었기 때문에 4각을 이루게 된다. 그와 동시에 사방의 방위가 정해진다. 그리하여 중앙의 5는 십자형을 그리고 있어 그

중심이 임금이기 때문에 오황극(五皇極)이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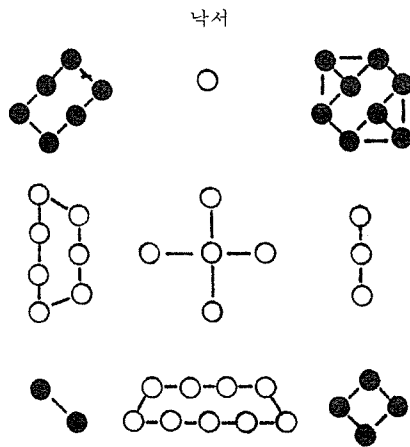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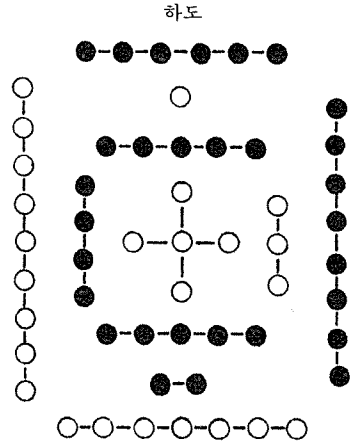


그림 2

또, 역학계몽(易學啓蒙)에는 다음과 같이 하도와 오행이 결합되어 표현되고 있는데 해석여화에 따라서는 천지창조에 관한 설명이라고 생각된다. 즉, 天一生水, 地六成之, 地二生火, 天七成之, 天三生木, 地八成之, 地四生金, 天九成之, 天五生土, 地十成之라는 구절이다. 말하자면 생성의 원리가 수에서 흙수가 생(生), 짝수가 성(成)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수에 대한 해석여화에 따라서는 구약성서의 창세기 천지창조의 글월과 극히 유사한 것이 된다.

역학계몽이 엮어진 연대는 분명하

지 않으나 위(魏)의 왕필(王弼), 진(晉)의 한강백(韓康伯)이 주를 달고 송나라 때 정자(程子)가 역전(易傳)을 짓고 주자(朱子)가 그의 참뜻을 해석하였다고 하므로 11세기 이후의 일일 것이리라. 여하간 필자 나름대로 해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天一生水, 地六成之는 하늘이 처음에 물을 생기게 하고, 땅에는 천지와 4방을 이루어 놓았다. 地二生火, 天七成之는 땅에 불과 빛을 생기게 하고, 하늘에 일, 월 및 다섯 별을 이루어 놓았다. 天三生木, 地八成之는 하늘이 물과 땅과 불로 나무를 생기게 하고, 땅에 여덟 절기를 이루어 놓았다. 地四生金, 天九成之는 땅에 사방으로 쇠를 생기게 하고, 하늘에는 성(星), 진(辰), 일, 월, 4시, 세(歲)를 이루어 놓았다. 天五生土, 地十成之는 하늘이 4 방에 흙과 사람을 낳게 하니, 땅은 그것으로써 완전하게 되었다.

이상과 같은 해석인데, 인류는 어떻게 해서 동서가 이렇듯 동서가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는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H. G. Wells는 구약성서의 천지창조편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세계에 있어서 그들(히브리인)이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한 이야기는 유사한 바빌론의 전설과 꼭 들어 맞는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모든 셈민족에 공통적인 신념의 일부였던 것 같다. 모세나 삼손의 이야기도 역시 스메리아나 바빌론의 이야기에 유사하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야기부터는 유대 민족에게만 있는 어떤 독특한 것이게 된다.

아브라함은 바빌론의 하무라비시대 경까지 소급하는 옛날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는 가부장제(家父長制)의 셈족 유목민이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Sumer 및 Babylon의 문화가 유목민족이라는 문화 전달 매체를 통하여 동으로도 전하여질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 수출위한 당신피땀 외래품에 낭비말자